불자 세상보기

윗물에게는 맑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석 길 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성으로서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돈을 많이 벌어 지금까지 고생만 한 부모님을 잘 살게 해드리고 싶다."

최근 탈북자 가족으로서는 처음 군복무를 마친 젊은 대한민국 청년의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자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말은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되었다. 청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하지만 호의에 찬 기사를 올린 언론의 입장에서는 대견하다는 심정이 묻어난다. 그만큼 그와 같은 경우의 젊은이가 흔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에서 젊은이의 의무감이 드러난다. 동시에 그러한 의무감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젊은이의 말투에서 권리 요구자의 당당함 또한 묻어난다. 거기에는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젊은 남성이 감당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마쳤으므로, 최소한의 권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당당함이 존재한다.

의무를 다한 당당함. 그 당당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의무로부터 오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당당함이기 때문이다.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공감만큼이나, 그 공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한조각의 분노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 공감에는 역시 씁쓸함도 묻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 희박해지고 있다. 상대방을 흔쾌히 인정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요모조모의 의심과 따지기가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진 것이 우리 사회 작금의 현실이이다.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의 세태다. 그러한 세태는 계층과 계층간의 문제가 발생할 때 더욱 심해진다. 특히 사회의 상류층이 대상이 될 때 그렇다. 왜 그럴까?

상대방을 의심하고 따지는 것은, 상대방을 흔쾌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서로 자주 모여서 정의(正義)를 강론하면 노소(老少)가 서로 화목하고 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여 어기지 않으면, 노소(老少)가 서로 화목하고 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법을 받들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알아서 그 제도

탈북인 1호 군필자 미담 기사는
한국사회에 던지는 경종 메시지

를 어기지 않으면, 곧 노소(老少)가 서로 화목하고 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공동체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의 일부분이다. 화합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화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서로 자주 모여서 정의를 강론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지향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윗사람답게 아랫사람이 아랫사람답게 처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법을 받들고 금기를 지키며 제도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에 충실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민해보자, 우리 사회는 그러한지? 혹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의무를 다한 것이 기사화되어 언론에 회자되는 대한민국이 부처님 말씀에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인지?

그런데 권한이 없는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강제당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의무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무의 불이행과 권한의 남용에 따른 사회 내부의 박탈감은 대부분 의무를 행하는 자에게서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비롯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회자되는 것이다. 응당 윗물은 맑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 출신 1호 군복무 이수자의 발언과 언론기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발언대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양극화 시대에 불교 사상이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의 주요 발제를 모아보았다. 〈편집자주〉

종교내 양극화부터 해결을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종교는 인간이 탐욕을 일으키지 말고, 거짓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불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므로, 이 탐욕을 수행을 통해 없애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인간 마음의 탐욕은 수행을 통해 다스릴 수 있지만, 자본(기업)의 탐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는 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왜곡되게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인간의 평등 · 평화 · 공존 정신에 맞춰 사회에 환원할 것을 권유하거나, 국가가 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종교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

IMF를 거치며 소수 재벌 중심의 이윤은 넘쳐났지만 그 이면에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 살인적 경쟁, 높은 자살률이 우리 사회가 야만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종교는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기는커녕, 거꾸로 자본의 속성을 따라가는 실정이다. 즉 덩치가 큰 교회와 사찰, 성당으로 신자와 재정이 몰리고, 작은 종교시설은 근근이 유지해나가고 있다.

종교는 평등과 평화 세상을 위해 개인에게 욕심을 없애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가르침의 범위가 신자 뿐 아니라 사회의 특원 및 지배 세력과 자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분명해야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의 탐욕은 교훈적이고 선언적인 몇 마디 말에 그 탐욕을 없앨 가망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쇼카 불교복지 사상 펼쳐야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아쇼카 왕은 경전에서 설해진 불교복지국가 모델에 가까운 국가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비록 오늘날 대한민국이 불교국가가 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평등 사상은 대한민국 곳곳에 전달돼 오늘날 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 대승불교의 중생구제란 바로 이러한 불교의 정신을 의미한다. 첫째 불교는 평등에 관한 불교교리를 불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상당수 불자들은 불교교리와 괴리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일부 불자들은 경전에 나타난 불교복지국가의 이상에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불교복지국가의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불교는 평등의 모범이 돼야 한다. 특히 정치적 · 경제적인 측면서 불교교단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전에 나타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교단 내에서 실현돼야 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는 출가자가 있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결과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재원 마련 등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 가칭 불교연금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

셋째 불교는 사회에 불교의 이상을 주장하고 불교의 이상이 현실 정치 및 경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교의 정치참여가 아닌 교리의 전파를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 불교교단의 모범을 보고 사회가 따라하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 세계적 차원서 불교의 평등사상이 전파되고 실현될 수 있을 때 이 땅은 불국정토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社說

10·27법난 명예 회복, 재단 설립부터

2008년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해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섰다. 8년간의 활동으로 96명 피해자 인정에 52개 사찰과 단체도 피해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런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가 6월 20일 해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을 바꾸게 된다. 새 체제하에서 심의위는 역량이 다소 축소될 예정이다.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되고 이에 따라 구성원도 한단계 씩 낮아진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교과서 수록, 기념일 제정, 언론사 정정보도, 대국민 홍보 등 더욱 중요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현행 특별법 상 심의위 활동의 근거가 미약하기에 재단 설립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데는 기념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5차례의 입법발의마다 기념재단 설립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강창일 의원의 발의로 기념재단 설립이 가시화됐지만 막판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10 · 27법난이 발생한 지 36년이 흘렀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재단 설립을 통해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압이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또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한국 돈황학 연구 발전 기대한다

중국 돈황은 동서문화의 십자로이자 불교 문화의 보고이다. 돈황을 통해 많은 문물과 사상들의 조우가 이뤄졌다.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돈황학은 세계에 있다(敦煌在中國, 敦煌學在世界)"는 중국의 문화교류사 연구 석학 지센린(季羨林)의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역사 · 문화적 연구 가치는 세계적이라는 의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인문한국(HK) 공동 사업의 결과물인〈돈황학 대사전〉한국어판이 가져올 학술적 영향력에는 많은 기대가 된다.

1998년에 출판된 〈돈황학 대사전〉은 사실상 돈황학 연구 성과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240만자의 한자가 사용됐고, 표제어만 6925개에 달한다. 표제어를 살펴보면 석굴 · 설법도 · 경변도 · 불교 전적 · 사경 등 불교 관련 분야부터 정치 · 법률 · 경제 · 복식 · 음악 · 천문학 · 민속 · 종교(도교, 경교, 마니교 등)까지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채색 그림 123폭과 텍스트에 딸린 삽도 626폭 등 수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들을 첨부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벽화나 유물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답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연구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보니 두 대학 연구소에서 번역에만 3년여가 걸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 발간은 인도 · 중국 · 실크로드의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 연구에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불교 문화의 교류 연구는 고대 한국인의 발자취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다. 〈돈황학 대사전〉한국어판 발간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문화 교류사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